

## 『율리시스』 독회: 「키르케」

김 상 욱

지난 11월 28일 토요일 <『율리시스』 독회> 모임에 동아일보 학술부 이새샘 기자가 방문하였습니다. 학술진흥재단 소규모연구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 학술 단체들의 활동을 취재하는 중 <『율리시스』 독회> 모임을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기자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띤 토론하는 장면을 취재한 뒤 공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사가 실린 신문의 내용을 동아일보사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박영대 기자)

\*이 보고서는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A00196).

## 동고동학

학개이 오임  
유주영

### 〈11〉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빠진 '율리시스 득희'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8년째 읽고 있는 '율리시스 득희' 회원들이 서울대 교정에 모였다. 이들은 '외국에는 24년 동안 율리시스만 읽는 모임도 있다'며 "일모 율리시스의 재미를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대 기자 sanna@donga.com

# "8년째 읽지만 읽을수록 단맛"

"'율리시스'는 'chewing cud'야. 소가 여물을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니까 자꾸만 더 씹어야요? '율리시스'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미가 느껴지는 소설이지." (김종진 고려대 명예교수)

소설 한 권을 읽는 데 7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린다면? 캐슬러씨가 아니다. 2007년 9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한 번씩 쉬지 않고 모여 4시간씩 읽었는데도 전체 19장 중 15장을 읽고 있다.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는 모임, '율리시스 득희'다.

28일 오후 2시 서울대 사범대의 한 강의실. 윤희환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 김서정 단국대 강사 등 독희 회원 13명이 모였다. 책상 위에는 '율리시스' 원서부터 번역본, 제임스 조이스 전기, 노트가 있었다.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율리시스' 낭독 음성 파일을 들었다. 그 뒤 시작할 토론은 왜 이 모임이 8년째 '율리시스'를 읽는지 집중하게 했다.

"2008년에 보면 'the rite is poet's rests'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무슨 의미인가요?"

"'rite'를 형식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고, 'rest'는 영원한 휴식,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조이스는 예술가의 의무가 그 시대 삶의 정수를 표현하는 거라고 봤으니, 형식만 남아 있는 상태는 죽음이러는 거죠."

'율리시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1904년 6월 16일 소시미언 레오 클라클이 일삼 속에서 의식과 의식을 넘나들며 겪는 방황을 엮어낸 소설이다. 이날 읽는 부분은 15장 중 둘째 취한 블룸의 의식의 흐

#### 율리시스 득희 회원들이 뽑은 율리시스 속 이 한 문장

김혜영 명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How can you own water really? It's always flowing in a stream, never the same... We is a stream. (영양분 들을 어떻게 소유하지? 항상 흐르는 이유로 물은 결코 똑같은 법이 없어. 살아 흐를 거야.)
김경숙 연경대 영문과 교수	History is a nightmare from which I am trying to awake. (역사는 내가 깨어나고 싶은 악몽이다.)
김갑중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The inelastic modality of the visible at least that if no more... (보이는 세계의 요사부족 양상, 그 이상은 아닐지도 모르겠고 이렇듯 아니다...)
김삼익 명남대 영어학부 교수	See ourselves as others see us. (내가 우리를 보는 도를 우리도 보자.)
김종진 고려대 명예교수	Stately, plump Buck Mulligan, came from the stairhead, bearing a bowl of lather on which a mirror and a razor lay crossed. (위풍당당하고 살만 벽 머리칼이 계단에서 나오며 거울 사발 들고 있는 대 키기 영 거울과 면도날이 십자자로 놓여 있었다.)
박진훈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ove loves to love love. (사랑은 사랑을 사랑하기를 사랑한다.)
이인기 명지대 영문과 교수	Hate, Love, Those are names. Rudy, Soon I am old. (미움, 사랑, 이것들은 단지 이름, 후다, 곧 나도 늙어.)
이종필 세종대 영문과 교수	The heavenreef of stars hung with humid nightblue tuck. (북극항성의 빛의 푸른색을 띤 별개기 달의 하늘의 별나무.)
전은경 숭실대 영문과 교수	...as a girl where I was a flower of mountain yew when I put the rose in my hair like the Ardusian girls used or shall I wear a rose yew... (제니 그 낙 산골에서 시절 그 인양루에서 처녀처럼 머리에 꽃을 꽂던 때 마흔년 장미꽃을 갈채하며 그레.)
정인환 명	Extremes meet! (극과 극은 만나다)

번역: 박영대 교수

#### 원서-낭독파일 등 준비

#### 매달 4시간 격없는 토론

문을 묘사한 부분. 토론은 '율리시스' 전체는 물론이고 조이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넘나들었다.

독희에 참여하는 회원은 15~20명. 대부분 영문학과 교수로 조이스의 작품에 전문적으로 삼고 있다. 이중일 세종대 영문과 교수(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장은 "지금까지 '율리시스'를 네 번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8개월, 두 번째 읽을 때는 6개월이 걸렸"다) "처음 읽을 때는 난해하지만 그 속

#### "난해해도 파격적인 소설

#### 일반인도 참여하세요"

에 질서의 실마리를 교묘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보물창이랄까 그 실마리를 찾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갑중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율리시스'를 읽었기 때문인지 처음 더블린에 갔을 때 꼭 외웠던 곳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며 "조이스가 더블린에 있어지만 자기 작품으로도 더블린을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정도로 당대 역사, 문화, 사회를 세밀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설

명했다. '문학에서 가능한 모든 실험을 한 작가' (김삼익 강남대 영어학부 교수), "김인문학 구질다나 유머가 넘쳐서 읽는 즐거움이 있다"(전은경 숭실대 영문과 교수)는 평도 따랐다. 특히 김갑중 고려대 명예교수는 '율리시스'만 세 번, 조이스의 작품 전체를 번역한 '국내 조이스 연구의 산증인'이다. 김 교수는 "텍스트의 모호성, 복수성(複數性) 때문에 외국에는 '조이스 산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구자가 많"다"며 "앞으로는 세이츠피어를 능가하는 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율리시스'가 난해한 작품으로만 평가받는 것은 경계했다. "당시 급서로 지정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율리시스'의 18장은 워낙 재미 있어서 그냥 드러내워서도 읽을 정도거든."

반대로 전남대 영문과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조이스 학회에 갔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식당 주인이 왔더라. 전공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율리시스' 독회를 하면서 학회에 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말은 '율리시스'의 재미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대변한다. 독희의 문도도 열었다. 클래식 현악기 전문점 '삼포니'를 운영하는 정영진 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의 소개로 독희에 나온다. 정 씨는 독희 내내 책들의 출판에 토론 내용을 필기했다. "내용이 어려워 쉬서 전 토론 해 한마디도 못했죠. 하지만 읽을수록 '율리시스'의 깊이에 놀라죠. 이 독희에만 오면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이세훈 기자 sanna@donga.com

A23면 / 2009-11-30 월요일

[동고동학] <11>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빠진 ‘율리시스 독회’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8년째 읽고 있는 ‘율리시스 독회’ 회원들이 서울대 교정에 모였다. 이들은 “외국에는 24년 동안 율리시스만 읽는 모임도 있다”며 “앞으로 율리시스의 재미를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 “8년째 읽지만 읽을수록 단맛”

“‘율리시스’는 ‘chewing cud’야. 소가 여물을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니까 자꾸만 더 씹잖아요? ‘율리시스’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미가 느껴지는 소설이지.”(김종건 고려대 명예교수)

소설 한 권을 읽는 데 7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린다면? 게을러서가 아니다. 2002년 9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한 번씩 쉬지 않고 모여 4시간씩 읽었는데도 전체 18장 중 15장을 읽고 있다.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는 모임, ‘율리시스 독회’다.

28일 오후 2시 서울대 사범대의 한 강의실. 윤희환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 강서정 단국대 강사 등 독회 회원 13명이 모였다. 책상 위에는 ‘율리시스’ 원서부터 번역본, 제임스 조이스 전기, 노트가 있었다.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율리시스’ 낭독 음성 파일을 들었다. 그 뒤 시작한 토론은 왜 이들이 8년째 ‘율리시스’를 읽는지 짐작하게 했다.

“2088행에 보면 ‘the rite is poet’s rest’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걸 무슨 의미인가요?”

“‘rite’를 형식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고, ‘rest’는 영원한 휴식,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조이스는 예술가의 의무가 그 시대 삶의 정수를 표현하는 거라고 봤으니, 형식만 남아 있는 상태는 죽음이라는 거죠.”

‘율리시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1904년 6월 16일 소시민인 레오폴드 블룸이 일상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겪는 방향을 엮어낸 소설이다. 이날 읽은 부분은 15장 중 술에 취한 블룸의 의식의 흐름을 묘사한 부분. 토론은 ‘율리시스’ 전체는 물론이고 조이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넘나들었다.

## 원서-낭독파일 등 준비 매달 4시간 격없는 토론 “난해해도 파격적인 소설 일반인도 참여하세요”

독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15~20명. 대부분 영문학과 교수로 조이스의 작품을 전공으로 삼고 있다. 이종일 세종대 영문과 교수(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장)는 “지금까지 ‘울리시스’를 네 번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8개월, 두 번째 읽을 때는 6개월이 걸렸다”며 “처음 읽을 때는 난해하지만 그 속에 질서의 실마리를 교묘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보물찾기하듯 그 실마리를 찾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길중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울리시스’를 읽었기 때문인지 처음 더블린에 갔을 때 꼭 와봤던 곳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며 “조이스가 더블린이 없어지면 자기 작품만으로도 더블린을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정도로 당대 역사, 문화, 사회를 세밀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문학에서 가능한 모든 실험을 한 작가”(김상욱 경남대 영어학부 교수), “깊이만큼 구절마다 유머가 넘쳐서 읽는 즐거움이 있다”(전은경 송실대 영문과 교수)는 평도 따랐다.

특히 김중건 고려대 명예교수는 ‘울리시스’만 세 번, 조이스의 작품 전체를 번역한 ‘국내 조이스 연구의 산증인’이다. 김 교수는 “해석의 모호성, 복수성(複數性) 때문에 외국에는 ‘조이스 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구자가 많다”며 “앞으로는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울리시스’가 난해한 작품으로만 평가받는 것은 경계했다. “당시 금서로 지정됐을 정도로 파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울리시스’의 18장은 워낙 재미있어서 그냥 드러누워서도 읽을 정도거든.”

민태운 전남대 영문과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조이스 학회에 갔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식당 주인이 왔더라. 전공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울리시스 독회’를 하면서 학회에 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일화는 ‘울리시스’의 재미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대변한다. 독회의 문호도 열어됐다. 클래식 현악기 전문점 ‘심포니’를 운영하는 정인경 씨는 3년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독회에 나온다. 정 씨는 독회 내내 색색의 볼펜으로 토론 내용을 필기했다. “내용이 어려워선 전 토론 때 한마디도 못해요. 하지만 읽을수록 ‘울리시스’의 깊이에 놀라죠. 이 독회에만 오면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 율리시스 독회 회원들이 뽑은 율리시스 속 이 한 문장

길해령 영남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How can you own water really? It's always flowing in a stream, never the same... life is a stream.(정말로 물을 어떻게 소유하지? 항상 흐름을 이루어 흐르는데 똑같은 법이 없어...살이 흐를이거든.)
김경숙 안양대 영문과 교수	History is a nightmare from which I am trying to awake.(역사는 내가 깨어나고 싶은 악몽이다.)
김길중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The ineluctable modality of the visible at least that if no more... (보이는 세계의 요지부동 양상,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그 이하도 아니지...)
김상욱 경남대 영어학부 교수	See ourselves as others see us.(남이 우리를 보듯 우리를 보자.)
김중건 고려대 명예교수	Stately, plump Buck Mulligan, came from the stairhead, bearing a bowl of a lather on which a mirror and a razor lay crossed.(위풍당당하고 살찐 벽 멀리건이 계단에서 나오며 거품 사발을 들고 있는데 거기엔 거울과 면도날이 십자꼴로 놓여 있었다.)
박진훈 고려대 강사(고대부고 교사)	Love loves to love love.(사랑은 사랑을 사랑하기를 사랑한다.)
이인기 명지대 영문과 교수	Hate. Love. Those are names. Rudy. Soon I am old.(미움, 사랑, 이것들은 단지 이름, 루디, 곧 나도 늙어.)
이종일 세종대 영문과 교수	The heaventree of stars hung with humid nightblue fruit.(촉촉한 밤의 푸른색을 띤 열매가 달린 하늘의 별나무.)
전은경 숭실대 영문과 교수	...as a girl where I was a flower of mountain yes when I put the rose in my hair like the Andalusian girls used or shall I wear a rose yes... (처녀 적 내가 산꽃이던 시절 그래 안달루시아 처녀처럼 머리에 꽃을 꽂던 때 아니면 장미를 몸에 걸쳐볼까 그래.)
정인경 씨	Extremes meet!(극과 극은 만난다!)

번역 이종일 교수

## 제63회 『율리시스』 독회

&lt;모임&gt;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2. 14. (토) 오후 2:00-5:45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윤희환, 홍덕선, 전은경, 박진훈, 최석무, 이인기, 정인경, 송인영, 강서정, 김경숙, 길혜령, 남기현, 이종일, 김상욱, 김석, 손승희

• 송인영: Circe 65 ~ : Way for the parson~

영국 병사 Carr와 Compton이 Stephen을 신부에 비유하는 대목. 이에 맞추어 스티븐도 카톨릭 신부의 미사 집전 기도문을 읊는다. 물론 병사는 검은 옷차림의 스티븐을 조롱하느라 한 말이고, 스티븐 역시 술기운에 조롱조로 그들에게 응대 한 것.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 이 대목은 스티븐이 흑미사의 사제이고, 그 흑미사의 의식이 “Circe” 장을 구성할 것임을 암시. 기존의 지배적 가치를 전복하는 흑미사의 성격에 합당하게, 벌써 서두부터 “반규범”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짐 (예: 밤, nighttown, prostitutes, phantasmagoria, unconsciousness, adultery, 죄의식, 빈민, 장애인). “Oxen” 장에서 정상적인 언어규범과 그것의 지배이념들을 훼손시킨 조이스는 그 장 결미를 언어/영어의 파편 더미로 채워 넣었다. 정상적 의미는 해체되고 물리적인 소리 값만 남긴 것. 이 언어의 파편 더미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 탄생해서 그 동안 공식 언어/영어가 억압해왔던 탈규범적, 무의식적, 환상적인 의미 내용들을 전달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새로운 유형의 화자들(call/answer 하는 호루라기, 밤거리의 남루한 아이들과 백치, 불구자, 귀신, 부채 등의 여러 사물들, 스티븐과 블룸의 무의식)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인다. 새로운 말의 활동이 새로운 화자들에 전달되는 것. 유럽/영국의 문화에서 숨겨져 오고 억압되어 왔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제 목소리를 얻는 장. 화자의 주관이 지배하기 마련인 내러티브의 담론성이 이제는 모든 인물이 제 목소리를 내는 드라마의 “gesture” 기능에 자리를 내주는 것도 의미심장함. “Literature and Drama”를 구분 짓는 조이스의 문학적 신념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

• 김경숙: 첫째로, “Circe” 장 전체에 대한 코멘트를 하자면,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가 Circe의 마법에 맞서기 위해 몰리라는 마초를 이용한다는 부분과 맞물리는데 이러한 correspondence 때문에 “Circe” 장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이 장이 벌어지는 실제시간인 밤 12시 midnight은 오늘이 내일과 만나고 밤이 새벽이 되는 신비로운 시간이고, 또한 장소인 brothel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성행위가 창녀와 손님 사이에 벌어지는, 즉

아내와 낯선 여자 그 경계에 서 있는 여성들의 공간이므로, 무어라 규정내리기 힘들 정도로 정체성이 무너지는 몽환적인 밤의 세계를 그린 듯하다. 그렇기에 사물에게 목소리가 주어지고 불륨이 여자가 되어 아이를 출산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상도 가능한 듯하다.

• **강서정:** 둘째로, 첫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stunted men & women, deafmute idiot, pigmy woman, gnome, crone, bandy child” 등 모두가 외형적으로 왜소하고 기형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독회에서 최석무 선생님이 언급하신 대로 영국의 속국이었던 아일랜드의 피식민상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36행에 등장하는 영국병사 “two night watch”의 등장을 “loom tall” (38행)이라 묘사한 것은 앞서 등장한 deformed Irish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208행의 “True word spoken in jest”라는 불륨의 독백은 앞서 195행의 motorman의 “[A]re you doing the hat trick?”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물론 여기서 motorman이 의도한 “hat trick”의 의미는 “모자로 오물 감추기”를 겨냥한 힐난이었지만, 실제로 모자 속에 Martha의 편지를 감추고 있었던 불륨은 속이 뜨끔하여 “농담 속에 진담이 있나니” 라고 읊조리는 듯하다.

15장 첫 부분에서 유난히 음악성이 두드러짐. whistle, “sings shrill,” “A plate crashes: a woman screams: a child wails” 등에서 안정감을 주는 중저음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음과 거슬리는 소리들이 많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 부분은 오페라의 서막처럼 느껴지고, 뒷부분의 스티븐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오가는 부분은 저음(스티븐)과 고음(Cissy, Bawd), 중간음(린치)이 어우러진 노래 같다. 각각의 대화가 표상하는 무질서, 질서, 두 가지의 절충에 따라.

불륨의 음식 취향(유태인이 먹지 않는 돼지 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같은)은 그가 어느 한 민족이나 경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임을 드러낸다. 불륨이야말로 온갖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다. 가톨릭에서 금식을 해야 하는 의무는 부활절 전 2번(재의 수요일, 예수님이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날 - 확실한지는 확인이 필요함)이며 금육을 해야 하는 때는 매 주 금요일이다.

• **박진훈:** Line 110~112에서 스티븐이 셰익스피어와 소크라테스를 비하시키는 단어들(shrewridden Shakespeare and henpecked Socrates, Stagyrite)이 나오는 데,

이 단어들은 스티븐이 아직도 타인과 융화하지 못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지적 오만’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티븐은 블룸을 만나 타자들과 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로 발전한다.

Line 153-154에서 블룸이 Fish and taters. N. g. Ah!(U15. 154)라고 하는 장면은 블룸이 고기를 사기 위해 ‘생선과 감자’를 파는 가게를 발견하고서 실망한다. 마침내 올하우젠 정육점(Olhausen’s)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블룸은 이곳에서 돼지족발(pig’s crubeen)과 양족발(sheep’s trotter)을 산다. 이 장면은 나중에 블룸이 이 족발들을 개와 스티븐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에서 유추해 보면, 블룸 자신이 먹으려고 족발들을 샀다기보다는 스티븐을 주기위해서 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블룸이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스티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길혜령:** “Circe”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기괴한 형상의 인물들과 분위기, 소리 등은 영국치하 아일랜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비인간적이며 여성적 혹은 유아적인 인물묘사는 주체성을 상실한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식민지인에 대한 영국인의 관점인 동시에 마비된 아일랜드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손승희:** 2009년 가톨릭 달력에 의하면 사순절(Lent)은 2월 25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에 이마에 재를 받는 의식을 시작으로 3월 첫째 주 사순 첫 주에 이어 3월 8일로 시작되는 이번 주에 사순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사순절의 ‘순’은 한 달을 셋으로 나누는 상순 중순 하순의 10일 단위의 ‘순’으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가 악마의 시험을 받으신 사십일을 기념하여 가톨릭에서는 통회와 보속을 바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끝 사흘에는 특히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죽음에 따른 무덤 속 기간을 묵상하는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성삼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절(Easter)이 시작됩니다. 미사 중 감실(niche)에 모시는 성체는 이 성삼일동안 성체조배실로 옮겨지고 대개 성당에서 밤낮을 이어 신자들이 돌아가면서 성체를 조배하게 됩니다.

가톨릭교회에서 금육은 연중 매주 금요일에, 단식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관면되는 경우는 외식이라든지 노약자의 경우입니다.



독회 내용 중 금요일의 생선 요리 메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gnome (15장 둘째 쪽)- 난장이의 뜻으로 (이를테면 dwarf 대신) 사용된 단어 gnome이 제게는 <더블린사람들>의 “The Sisters” 첫머리에 언급된 gnomon을 연상시켰습니다. 혹시 gnome과 gnomon 사이에 무슨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는지.

two watch-두 사람의 야경꾼을 뜻하는 two watchers가 맞다는 의견 나왔지요. 그렇게 two watchmen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watch를 동사로 보면 어떨는지요.

rixdix-불어 rire+dire의 합성 의미가 연상됩니다. (웃다+말하다->웃으면서 말하다/말하면서 웃다) 혹은 x를 wild card 기능으로 봐서 이를테면 ri\*di\* 식으로 본다면 지나친 걸까요. a composite portrait-몽타주 또는 한 면에 들어간 여러 개의 초상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석무**: 15장에서 시작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다(stunted men and women, a deafmute idiot, a pigmy woman, a gnome, crone, a bandy child, a drunken navvy, a scrofulous child). 반면에 두 야경꾼 (watch)은 영국 군위들로서 키가 크다. 아일랜드인들은 신체적으로 왜소하거나 병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의 식민지적 상황을 보여준다.

210행의 “Monthly or effect of the other”: 불륨의 두통의 원인을 보여주는 이 부분은 불륨의 여성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장 뒷부분에 불륨이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 부분에서 매달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여성의 월경과 같은 것을 불륨이 매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the other”는 14장 해변에서의 자위행위를 말한다.

## 제64회 『율리시스』 독회

###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3. 21. (토) 오후 2:00-5:45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윤희환, 홍덕선, 전은경, 김종건, 김길중, 박진훈, 최석무, 이인기, 정인경,  
송인영, 강서정, 김경숙, 길혜령, 남기현, 이종일, 김상욱, 김석, 손승희

### 제65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4. 18.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홍덕선, 전은경, 박진훈, 최석무, 강서정, 김경숙, 길혜령, 남기현, 김종건,  
김길중, 윤희환, 이종일, 김상욱, 김석, 손승희, 이인기, 정인경, 송인영

### 제66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6. 27.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남기현, 이종일, 김상욱, 김석, 손승희, 김종건, 김길중, 윤희환, 홍덕선, 전  
은경, 박진훈, 최석무, 이인기, 정인경, 송인영, 강서정, 김경숙, 길혜령

### 제67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7. 18.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박진훈, 이영심, 남기헌, 최석무, 김경숙, 이인기, 홍덕선,  
전은경, 송인영, 손승희, 김상욱, 강서정, 윤희환, 김석, Amanda Lynn  
Lonner

### 제68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반석아파트 104동 207호 (윤희환 교수 자택)

일시: 2009. 8. 22.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김길중, 박진훈, 이영심, 최석무, 김경숙, 손승희, 김상욱, 이인기, 홍덕선,  
윤희환, 김석, Amanda Lynn Lonner, 민태운, 전은경, 이종일

### 제69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9. 19.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Justin Greenwood, 김상욱, 윤희환, 최석무, 이종일, 민태운, 손승희, 강서정, 김석, 이영심, 남기현, 박진훈, 이인기, 홍덕선, 전은경, 이태수

### 제70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동 106호

일시: 2009. 10. 17.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남기현, 윤희환, 김상욱, 김경숙, 김길중, 이인기, 홍덕선, 이종일, 강서정, 이영심, 손승희, 정인경, 김종건, 김석, 유두선, 서울대 영문과 학부생 4명  
참관

### 제71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11. 28.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전은경, 박진훈, 이종일, 김종건, 김상욱, 윤희환, 김경숙, 이새샘(동아일보 기자), 정인경, 강서정, 민태운, 이인기, 김길중, 홍덕선

제72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12. 19.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윤희환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윤희환, 홍덕선, 전은경, 박진훈, 이태수, 이인기, 정인경,  
강서정, 이영심, 김경숙, 길혜령, 남기현, 이종일, 김상욱, 김석, 손승희